

서유럽

포르투갈 여행기

글. 박진용 BBS 불교방송 라디오기술부



※코로나 19 발병 전 다녀온 여행기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 서핑을 하던 와이프가 말했다. “우리 포르투갈이나 갈까?” 갑자기 웬 포르투갈이나 물으니 영국 항공에서 항공권이 싸게 나와서 유럽 어디라도 가야겠다고 유럽 중 포르투갈은 아직 가보질 못했단다. 나는 신혼여행 이후 유럽은 처음인데... 비긴 어게인 2 프로그램의 촬영지가 포르투갈이었는데 그 배경 장소가 인상적이었다. 김윤아의 몽환적인 목소리에 어우러진 도우루강의 아름다운 석양이 가슴 속에 훑 파고들었다. 그렇게 후다닥 일정을 짜고 우리는 영국 항공에 몸을 싣고 포르투갈의 첫 번째 여행지인 ‘포르투’로 향했다.

처음 마주한 포르투의 인상은 꽤 당황스러웠다. 어마어마한 언덕길, 그것도 경사 30도 이상은 족히 되어 보이는 격한 언덕길이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언덕길에 반전 매력이 있다.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거리 풍경이 매우 생동감 있게 느껴졌다. 구불구불한 언덕을 따라서 줄지어진 가옥들, 그곳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언덕을 배경으로 한 포르투는 전문가의 손을 타지 않아도 A급 사진을 쉽게 건져낼 수 있었다.



동루이스 다리



포르투 시가지



포르투 도우루강 전경



클레리구스 성당에서 펼쳐진 포르투 전경

포르투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있다는 클레리구스 성당을 찾았다. 이 성당은 예배당보다 첨탑이 더 유명하다. 225개의 좁은 계단을 오르면 포르투 시가지를 360도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단을 빙빙 돌아 정상에 힘겹게 오르자 포르투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아름다운 주황색 지붕들과 그 너머 도우루강까지. 확 트인 파노라마 뷰에 선선한 바람을 마주하고 서니 벌써 포르투에 푹 빠져버린 느낌이다.

포르투를 구석구석 느껴보기 위해 자전거 투어를 신청했다. 자전거로 포르투를 크게 한 바퀴 돌며 주요 포인트에 대해 설명을 듣는 3시간짜리 코스였다. 독일에서 온 4명의 중년 여성들과 우리 커플까지 총 6명이 함께했다. 도우루 강둑을 따라 포스와 마토지뉴스의 해변까지 달리는 길은 꽤 신났다. 도우루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길이 이렇게 짧은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더욱이 자전거로 시원하게 달리니 색다른 체험이었다. 도시로 다시 들어와 공원까지 달리는 길은 매우 힘겨웠다. 언덕길이 많아 허벅지가 터질 만큼 패달을 밟아도 제자리였다. 독일 아주머니들은 얼마나 힘이 좋은지 벌써 정상까지 올라 뒤풀이 중인 우리를 여유롭게 기다리곤 했다. 녹색의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에서 한적한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이번엔 강을 건너 와이너리로 향했다. 포르투는 ‘포트 와인’이 유명한데 일반 와인보다 더 달고 독하

다. 브랜드를 첨가해서인데 덕분에 알콜 도수가 약 20도에 달한다. 투어를 끝내고 다음 날 포르투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이곳을 다시 찾았고, 포르투 와인의 매력에 흠뻑 빠진 우리는 여행 내내 포르투 와인과 저녁을 함께 보냈다.



렐루서점 외관



렐루서점 내부

포르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햇살이 부서지는 도우루강을 바라보며 포르투 와인을 마실 때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마시는 달짝지근한 포르투 와인은 천상의 맛이였다. 강가에 늘

Broad Sharing

어선 알록달록한 가옥들과 느릿느릿 흐르는 강물은 환상의 콜라보였다. 하염없이 바라봐도 질리지 않았다. 낮에 보는 도우강과 해질녘에 보는 도우루강은 또 달랐다. 동루이스 다리를 건너 포르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는 하루에 몇 번씩 찾았다. 보고 또 보면 보는 만큼 사랑에 빠지는 풍경이었다. 해리포터에 영감을 주었다는 텔루서점과 아줄레주(채색한 타일 장식)가 유명한 상 벤투역 등 유명한 관광지도 많았지만 고생스럽게 오르내리던 언덕길과 도우루강만큼 이곳을 빛내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4일이나 머물렀지만 아쉬운 발걸음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인 ‘기마랑이스’를 찾았다. 포르투에서 1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이곳은 포르투갈 역사에서 큰 의미를 갖는 도시다. 포르투갈 최초의 수도이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출발할 때는 분명히 해가 쨍쨍했는데 도착하자마자 비가 미친 듯이 쏟아졌다. 덕분에 첫날은 자연스럽게 쉬어가는 날이 되었다. 저녁이 되어 비가 그치고 축축해진 구시가지지를 걷는데 이걸 마치 역사 속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중세시대로 갑자기 이동한 느낌이랄까, 골목 끝에서 말을 탄 기사가 달려올 것만 같았다. 고스란히 남아있는 중세 거리를 거닌다는 것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여왕의 마을, ‘오비두스’다. 이 마을을 방문한 이사벨 여왕이 마을을 보고 반하자 왕이 마을 전체를 선물로 주면서 이런 별칭을 얻었다고 한다. 우리가 갔던 날은 마을 행사가 있었는데 꽃으로 마을을 꾸며 사랑스러운 느낌이 가득했다. 주황색 지붕과 흰색 집의 조화뿐 아니라 조약돌길과 담쟁이 덩굴, 꽃장식까지... 동화 속 마을을 옮겨온 듯했다. 작은 성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짧은 시간 내에 둘러보기 충분했지만, 관광객이 다 빠진 한적한 저녁을 산책하는 것도 근사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먹은 문어 요리는 저세상 맛이라고 해도 될 만큼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마지막 목적지인 리스본을 가기 전 '신트라'로 향했다.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닌 덕에 대중교통으로 가기 힘든 곳도 쉽게 갈 수 있었는데 우연히 찾은 콜라레스에서 역대급 풍광을 만나게 된다. 가슴이 뻥 뚫릴 만큼 거친 바람과 파도가 인상적 이었는데, 어쩌다 발견한 곳이어서인지 감동이 더 컸다. 유럽대륙의 끝, 호카곶도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유명하다. 막상 가보니 절벽과 등대만으로도 제주도라니 이미지가 겹쳐 웃음이 났다. 대륙의 끝으로 달려왔는데 풍경이 제주도라니... 무어인의 성과 페냐성은 당일치기 코스로 묶어 함께 관광하기 좋다. 무어인의 성은 높은 산 위에 만들어진 성곽으로 꼭대기까지 오르는 계단은 아슬아슬할 정도로 스릴 만점이었다. 이곳에서 보는 경관도 장관이다.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웅장한 풍경을 바라보면 절로 힐링이 된다. 당시 이렇게 높은 산 위에 성벽을 지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페냐성은 원색의 알록달록한 배색과 다양한 건축양식이 합쳐진 곳으로 화려함의 극치를 달린다. 마치 동화에 나올 것 같은 예쁜 성이다. 찢어질 듯 파란 하늘과 페냐성의 조합덕에 어떤 곳에서 사진을 찍어도 인생 컷을 건질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여행지는 리스본이다. 포르투부터 강렬한 인상을 받아왔던 터라 복잡한 리스본에서는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여행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체력이 고갈된 탓도 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체력 충전을 위해 맛집을 투어하며 다녔는데, 이곳에서 제로니무스 수도원 근처에 있는 인생 에그타르트를 만나게 된다. 강렬한 버터향에 바삭바삭한 패스트리 그리고 진한 커피 한 모금에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누군가는 덤섬을 먹으러 홍콩을 간다는데, 에그타르트를 먹으러 리스본을 간다고 해도 이해가 될 것 같았다. 리스본의 명물인 노란 트램을 타고, 또 노란 트램이 달리는 골목길을 걸어보고 리스본에서는 포르투갈 여행의 아쉬움을 걷는 거로 달랬던 것 같다. 덕분에 처음에 느꼈던 실망감이 익숙함으로 그러다 이곳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기 시작했다. 트램 안에서 소매치기들을 마주해도 웃음이 났다.

포르투갈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를 달리며 여행을 하고, 포르투와 리스본에서 많은 길을 걸어 다니며 10일간의 여행을 끝냈다. 서유럽 끝에 있어 동선상 좀처럼 다가가기 어려운 여행지였는데 어느 나라와 묶어서 여행하기보다 오롯이 이곳, 포르투갈만 여행하기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

